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들께 드리는 교육감 서한문

존경하는 인천 교육가족 여러분,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되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인천시교육청 모든 교직원들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저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 중 하나인 중국의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아픔과 어려움을 빨리 이겨내길 응원합니다. 바이러스의 확산보다 심각한 것은 혐오 바이러스의 확산입니다. 바이러스는 퇴치하고 치료하면 되지만, 혐오 문화의 확산은 회복할 수 없도록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보이지 않게 정신을 병들게 하며,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3,200명의 중국 이주배경 학생이 있습니다. 모두가 인천의 아이들이자, 우리의 자녀입니다. 단지 중국 학생이라는 이유로, 중국 이주배경이 있다고 해서 맹목적인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혐오를 거부하고, 협력과 공동체 정신을 확산시킵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시민정신을 발휘해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긴밀한 국제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인천시민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협력으로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갑시다.

2020. 2. 12.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